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

조계화¹ · 손기철²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²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storation Experience of Korean Elders in America toward Suicide Ideation

Jo, Kae Hwa¹ · Sohn, Ki Cheul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²Full-time Lecturer,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suicide ideation and survival experience of Korean elders in America. **Methods:**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guid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total of five elders reported having had suicide ideation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ll interviews were audio 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Coding was used to establish different concepts and categories. **Results:** The following three constituents have been identified: retrospective focus based on the suicide ideation through the immigrant life, facing reality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life in America and in Korea, survival skills and constructing view of life.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at various crisis settings to understand Korean immigrant elders with suicide ideation.

Key Words: Immigrant, Elderly, Suicide, Survival,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190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1950년대 6·25사변과 더불어 미군과 결혼한 여성, 6·25직후 시작된 한국 고아의 미국 입양과 1960년대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1970년대부터 가난을 벗어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한국인의 집단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한국 노인의 수적 증가는 아시아계 소수민족 가운데 세 번째로 노인인

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Chee, 2004). 이들 한국 노인은 생존을 위한 사회, 문화적 적응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변화, 가치, 행동, 인식과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사회 일원으로서 정서적, 문화적 마찰에 직면하게 된다(Lee, 2007; Hovey, 2001). 현재 미국계 한국인의 삶은 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노동으로 주류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대부분 차별대우, 의사소통 장애, 고독감, 낯선 환경으로 인한 불안감과 방향감각의 상실을 경험하면서(Lee, 2007; Hovey, 2001), 우울과 자살생각 등 노년기의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생의 통합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노인의 건강문제와 삶

주요어: 이민, 노인, 자살, 생존,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o, Kae Hwa,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50-4392, E-mail: jokw@cu.ac.kr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013-E00062).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KRF-2008-013-E00062).

투고일 2010년 10월 21일 / 수정일 2011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2월 14일

의 질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미국의 인종별 노인 자살률은 아시아인이 10.6명으로 백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보이며,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은 중국, 일본, 필리핀 같은 다른 아시아계 이민족 보다 우울 증상과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된바 있다(Lee, 2007),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이민 온 노인들이 생존을 위한 정신적 고통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적 적응 문제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Mui, 2001; Chee, 2004). 이러한 노년기의 이민은 언어적,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어른으로서의 자존심과 힘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세대차이, 가족 구조와 도덕적 가치의 변화, 역할갈등 등으로 인해 노인의 삶의 질이나 이와 관련되는 건강문제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Mui, 2001).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민 노인의 자살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에 관해 Kim (2002)은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자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층의 자살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하는 빈도가 높다. 한국인 평균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1명인데 비해 80~85세의 연령대는 127.1명에 달한다(The Bureau of Statistics, 2009)는 사실은 노인 간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은 70% 이상이 배우자 사별이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식의 외면으로 인한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에서 오는 것에(Jo & Kim, 2008) 반해, 이민 노인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심리 사회적 위축, 자녀세대와의 갈등과 우울(Hovey, 2001)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노인과 이민이라는 이중적 측면에서 노인 간호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인생의 종착점에 이른 노인이 서둘러 인생을 마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Bennett & Collins, 2001). 특히 노화와 건강약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능력상실과 만성질환은 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참여의 기회를 저해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 절망감은 노인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고 볼 때, 노인자살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서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Carter-Pokras와 Woo (1999)는 미국 내 소수민족은 백인에 비해 높은 이환율과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나 소수민

족의 건강관리 수행 및 건강신념에 관한 자료와 대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소수 민족인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하여 자살생각 극복 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소수민족 이민 노인에 대한 효율적 건강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의 서구화 경향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노인의 실정을 보면서 한국 노인의 미래를 진단하는 표적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Jo & Doorenbos, 2009)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사회 노인자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죽음이 노년기 인생 과업의 중요한 과제이기에, 노인과 가족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생존 경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노인자살의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자살 태도를 밝혀내는 것은 노인의 자살 예방에 대한 방안 모색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건강과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Park, 2000), 노인을 둘러싼 가족과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포괄적인 노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회지지 체계는 노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고 정서적, 신체적 안녕을 강화한다. 특히 노인의 자살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처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사회조직망의 유용한 지지와 노인간호중재의 고안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하며 이는 인간사회 교류의 질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통합으로 완벽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을 밝혀내어 미국 내 이민 노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중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수민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실제적 정책 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노인의 우울과 자살요인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맞추어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탐색하는 양적 접근법에 의존해 왔으나 인간경험의 심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험적 현상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견된 지식을 보다 널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Giorgi (2004)의 현상학 연구는 참여자의 특정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의미를 지닌 단위들을 구별하여 이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고 분류하여 경험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합성과정을 거쳐서 경험에 대한 미시적 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이민 한국노인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민 노인에게 있어 자살생각과 극복의 경험적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경험 요소들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의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iorgi (2004)의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술적 현상학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미국 워싱턴 주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 5명이며 그 중 남자 노인은 2명, 여자 노인은 3명이다. 현상학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대표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Giorgi,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인 부인회와 노인센터 1곳의 책임자에게 자살생각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소개해 주도록 의뢰하여 1명의 참여자를 선정할 후 눈덩이 굴리기 표집방식을 적용하여 5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생각에 대한 용어는 고통스런 삶의 극복 기제로 자살을 가능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자주 ‘죽고 싶다’는 자살의도를 표출한 경우로 정의된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살기 싫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Short Portable Mental Status Questionnaire (SPMSQ) 점수가 7점 이상으로 대화가 가능

하며 기억력 등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노인을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연구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초기에는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미국에서 지내 시기가 어떠세요?” “이민 생활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등의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면담의 단계는 이민생활 경험 전반에 걸친 회상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경험의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의미단위를 나누고,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각 참여자에게서 이 구성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면담 횟수는 각 참여자에 따라 3~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1회 면담시간은 1인당 최소 40분에서 최대 2시간으로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질문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도중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한 후 면담 후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반응, 그리고 면담 도중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 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Giorgi (2004)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5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 필사한 자료집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참여자의 진술을 단어, 구, 문장, 단락을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전환되는 자료를 찾아 표시하였다.

이 의미단위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분석 노트에 의미 단위의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필사를 하고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한 후 58쪽 분량의 면담자료를 실제 분석하였으며 대략 72개의 의미단위 목록이 작성되었다.)

- 참여자의 진술에서 찾아낸 의미의 단위를 간호학 언어로 전환하여 진술하였다.
- 찾아낸 의미 단위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주제범주를 찾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경험의 구성요소(Table 1)를 작성하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였다.
-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자살생각과 극복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류 절차는 참여 노인과의 비구조적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드러난 의미에 따라 잠정적인 주제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주제를 찾아낼 때까지 참여자를 재방문하고 관찰하면서 자료를 비교, 대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은 이민 노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살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찾아내고 그들이 살아온 극복 경험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즉 자살생각과 극복 경험이라는 주제를 발견할 때까지 탐구의 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질문을 만들어 답을 얻어내는 반복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일 참여자는 처음 방문 시 “인간은 실패자를 미워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구요.....” 하면서 어떻게 자살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참여자 자신의 자살생각 의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재방문하여 추가면담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돈은 장난감이 아니에요...”라는 연구 주제와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Morse와 Field (1995)의 질적 연구 감사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을 통하여 현상의 정황을 파악하고 참여자와의 신뢰를 형성 하였다. 각 개인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받았고, 각 면담 시 참여자들의 진술과 표정, 태도 등을 관찰하고 메모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 동료로 개입시킴으로써 정직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자극하고 동료와 연구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을 흐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연구의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연구참여자와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보여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 일 대학교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CR-08-055-PRO-02-R)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악행금지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면담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결과가 출판된다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 받고, 연구참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모두 필사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연구자 고유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참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하였다.

연구결과

1. 자살생각 극복경험의 구성요소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의 구성요소는 ‘자살생각의 발상에 근거한 이민 생활사건의 반추’, ‘이민을 선택한 동기에 초점을 둔 현실직시’, ‘의식전환과 새로운 생활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Table 1).

1) 자살생각의 발상에 근거한 이민 생활사건의 반추

참여자들은 이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살생각을 하게 된 굵직한 생활 사건들을 떠올리며 왜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반성한다. 이러한 삶에 대한 반추는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반응 또한 다르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참여자에게 자살생각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

Table 1. Constituents of the Restoration Experience and Empirical Variation for Participants with Suicide Ideation

Constituents	Participant 1	Participant 2	Participant 3	Participant 4	Participant 5
Reflection of an immigrant life based on the suicide id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neliness Break of social life Self blame Depression Physical p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fined life Feeling of isolation Anger Betrayal Burn-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pair Loss of self-respect Powerlessness Bitterness Being p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lplessness Collapse of family relation Bankruptcy Hollow feeling Heartbreaking Loss of self este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os Feeling of dryness Sense of inferiority Loss of self identity Loss of nationality
Face up to the reality focusing the motive of immig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ld care House working Benefits of social security Appreciating immigrant state Attendance of religious activity Independent life Feeling of rel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fant rearing House working Benefits of social security Appreciating immigrant state Attendance of religious activity Active life Feeling of reli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ild care House working Turning to the help Appreciating neighbors Following neighbor's religion Acceptive life Fear of remaining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usiness Education Isolated self Despairing self Recognition of self as a failure Wounded self Feeling of nostalgia Thirsting for true 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llbeing Obstinate self Wavering self Confusion of self identity Drifted self Feeling of discrimination
Conversion of a consciousness and strategies of a new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andonment Adjustment to environment Reading the bible Having freedom from anxiety Establishing new personal relationship with self and people of the same 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With tears Exert all possible efforts forgetting the past life Immersion to self Possessing sense of safety Establishing strong self image, independent, and passionate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Being talkative Change her personality Feeling herself valuable Keeping aloof from life and death, her hope is concrete and reali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awing Meditation Reminiscence Simplifying his life Changing his view of life and taking off his false-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version Roaming the city Efforts for finding strong point to others Identifying himself with people in Korea Changing his thoughts and attitudes toward life and self through liberal mind

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온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은 과거의 특정 이민 생활사건의 단면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회고한다.

참여자1은 미국인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16년 동안 손 자녀 셋을 돌보면서 바깥출입 한번 못하고, 애기 할 사람도 없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로 세월을 보낸 참여자는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만 아이들 두고 그럴 수도 없어 답답한 세상을 살아 온 자신을 한탄하며 바람처럼 지나간 세월을 회상한다. 참여자2는 큰 딸이 보고 싶어 들어 왔다가 딸에게 붙잡혀 20년간 손 자녀 아홉을 길러 낸 경우로, 참여자의 노고에 대한 자녀의 무반응과 냉담함에 원망과 분함을 견디다 못해 나와서 혼자 사는 참여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 남은 건 병든 몸뚱이 하나 뿐으로 이래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 생각도 잠시 뿐 한국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정이 자살생각을 접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참여자3은 딸과 미국 사위 간의 갈등과 이혼으로 인해 딸이 정신병을 앓고 어머니를 몰라보고 욕을 하는 등, 참여자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비판하여 죽으려고 했으나 정신 나간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의지할 데 없는 자신과 딸의 신세를 한탄한다. 참여자4는 과거에 한국에서 잘 살다가 아이들 교육과 친척들의 초청으로 이민 온 경우이다. 참여자4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여 이민 10년 만에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 자녀와의 갈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상실로 자신의 신원을 무기수의 삶에 비유한다.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하이웨이를 달렸으나 그럴 때 마다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아 이제는 자신을 달래는 마음수련을 하고 있다. 참여자5는 배우자와 함께 이민 온 노인으로서 미국 이민생활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보장혜택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율성 상실과 내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우울한 심경을 표류자의 삶에 비유한다. 노년기 이민생활의 답답함과 문화적 괴리감을 자책하며 방향 없는 이중적 정체성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고민한다. 이와 같이 자살생각을 한 참여자들의 과거 자살 관련 생활사건의 반추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참여자1은 미국인과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16년 동안 집안에 갇혀서 손 자녀를 돌보며 집안 살림살이를 하다가 더 이상 팔을 쓸 수 없게 되자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다. 긴 세월 동안 혼자 지낸 시간을 회상하며 바

보 같은 삶을 산 자신을 한탄한다.

16년 동안 애 셋을 돌보다가 이제는 팔이 아파서 이러다간 안 되겠다, 독립해야겠다 싶어 딸에게 나가려고 말하니 못나가게 해요(쓸만하니까). 미국 생활이 너무 막막해서 죽고 싶은 생각 뿐이었지요. 한국생각이 나고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그런데 팔이 아파 병원에 가니까 입원해야 하는데요. 그때부터 병신이 되어 혼자 사는 거예요.

참여자2는 딸이 보고 싶어 들어 왔다가 아침마다 애들을 이곳, 저곳에 데려다 놓고 직장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내가 봐 줘야지 하는 생각에 놀러 앉아 26년의 세월을 보낸 여성노인이다. 긴 세월 동안 참여자의 노고에 대한 자녀의 무반응과 냉담함에 원망과 분함을 느끼며 병든 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판한다.

후회도 많이 했어요. 꼭- 간헐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26년이 지나고 나니 병이 나더라고요. 들어와서 딸, 며느리 이 집, 저 집 애들 길러주고... (한숨지음). 50에 들어와서 그것들 길러 놓고 나니 머리가 아프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손 붙잡고 우리 엄마 고생했어! 그런 자식 없어요. 바라지 말아야지... 안 바래요. 그래도 서운해요. 께씸하고...

이 진술에서 참여자1과 참여자2 모두 딸의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집안 살림과 손 자녀들 기르는데만 전념하였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노년기 질병을 얻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된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자식들에게 투자한 지난 삶에 대한 자녀들의 무관심에 상처를 입고 자살생각을 하였으나 자기 상처와 고통보다는 그래도 자식에게 해가 될까봐, 정신적 고통이 한이 되어 신체증상으로 표출되기까지 안으로 삭이기만 하는 한국 어머니의 모성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자3은 딸과 미국 사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딸이 정신병을 앓고 어머니를 몰라보고 욕을 하는 등, 딸의 이혼과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비판한다. 참여자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다.

내가 없었으면 딸이 이혼하지 않았을 걸.. 딸이 통하지 않으니 사랑하고 싶은 사위는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믿었던 친구가 남편하고 노는 것 보고는 미쳐버렸어요. 내가 뭘 물어보면, 엄만 몰라도 돼! 하고 입을 막아 버리고.... 매일 콜라 1케이스, 담배 1갑이에요.

위 진술에서 참여자3은 딸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까지 간 지경을 자신의 무지와 책임으로 돌린다. 정신 나간 딸의 삶에 희망이 없고, 참여자 자신의 자존감 상실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희망 없음은 딸의 병이 완쾌되기 어렵다는 지각과 참여자의 미래가 현재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며, 이러한 고통은 죽음으로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참여자4는 이민 온 이후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와 파산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배우자, 자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혼자 거주하는 남성노인이다. 참여자는 자신이 차가운 무인도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옛 시절을 회상한다.

내 참 죽으려고 아이 파이프 도로를 췌게 달렸지, 그 날따라 아무 놈도 나를 박지 않는 거야. 다 피해 가더라구... 인간은 실패자를 미워하지요. 그게 한계입니다. 혼돈에서 배웠기에... 대드는 자식, 철없는 마누라는 자신이 풀어야 할 십자가인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한숨지음)... 그런데 나는 혼자서 내 삶을 지옥을 만들고 있으니... 한 여름 강가에 수박 한 덩어리 띄워 놓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며 지낸 시절이 그리워요.

이 진술은 20년 이민생활에서 경제적 파산과 가족관계의 붕괴를 경험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의식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마음을 돌려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사례이다. “아무리 미국 음식이 좋다 해도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나요?” 하면서 마음 한 구석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참여자5는 한국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생활을 한 후 배우자와 함께 이민 온 남성노인으로 문화적 이질성과 사회활동의 단절을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한다. 미국의 노인보장정책을 도리어 자율성 상실과 인간으로서 버려졌다는 우울한 심정으로 이민생활을 표류자의 삶에 비유한다.

나는 60년대 사람이예요. 거기서 필름이 끊겼어요. 여기는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영성해요. 골다공증이라 해야 할지... 대화가 잘 안돼요. 네트워킹도 안되고... 모든 것 잊어먹고, 미국생활에서 남은 것은 고집밖에 없어요. 방향성도 없고, 언젠가 우리 노인에게 설문지를 줬는데, 뭘 써야 하는지, 생각이 안나요. 치매의 자각증상이라 해야 할지... 내가 잘 살기 위해 왔는데, 사람은 짐승과 달라 배 말고 채워야 할 데가 있는데... 혼자서 독백하거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요.

참여자5의 진술에서와 같이 인생 후반기의 이민생활은 자살생각에 이르는 자아정체성의 혼돈과 우울, 표류함, 자존감 저하 또는 도덕적 함축과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참여자는 미국 이민노인의 자살생각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자살생각의 발상에 근거한 이민 생활사건의 반추는 참여자의 과거 상황과 그 상황의 자기 해석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정서기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회상의 초점은 상이하고 그 반응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노년기 자살생각은 가정불화와 신체적 질병,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정체성 상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 스트레스는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며 절망이라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수단으로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

2) 이민을 선택한 동기에 초점을 둔 현실직시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이민생활과 예전의 한국생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선택적 과거 회상에서 벗어나 이민생활을 선택한 동기와 현실세계로 초점을 맞춘다. 자살생각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고착되었던 자아가 자기성찰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로 확대되며 일상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온다. 참여자의 시선이 과

거에서 현실의 문제로 변경되면서 가족이 아닌 이민국의 사회제도와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현실 직시는 이민사회의 연계체계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돌봄을 계기로 참여자 자신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참여자1과 참여자2의 경우는 중년에 이민 온 후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단절로 고립된 삶을 살아오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수고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자 섭섭함과 분노, 신체적 소진과 질병으로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독립적 삶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이웃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이 참여자들은 한국의 노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안정적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자기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점차 사회성을 키워간다.

여기는 65세가 지나면 아파도 병원에서 다 치료해 주고 월 pay 나오지, 생활비, 반찬비 나오고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괜찮아요. 노인들 대우도 좋고. 조금만 아프면 일하는 사람이 와서 다 해줘요. 이런 것 보면 이민 잘 왔다 싶다가도... 아파트 노인모임에 커피 타임이 있어요. 그때는 음식냄새 날까봐 양치질을 하고 입을 닦고 또 닦고 레몬을 먹고 그래요. 지금은 한국 사람이 많이 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음식 먹고 얘기하고 놀지요.

참여자1과 참여자2는 신체적 불편감과 정신적 고립감, 자식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내적 분노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신체적 증상과 건강문제로 고통당하는 좌절의 시간을 겪었다. 아들과 딸, 며느리, 손 자녀들이 있지만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해 오던 참여자들에게 지금은 혈연관계가 아닌 보편 사회적 지지가 참여자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년배 한국 노인들과의 생활을 통해 자신을 가족과의 밀착에서 분리시키는 객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참여자3은 이혼의 충격으로 정신 나간 딸을 보고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 상실로 자살할 생각을 하였으나 포기한 상태에서 자신을 향한 이웃과 종교단체의 관심과 배려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다.

어차피 때가 되면 갈 테지만 왜 이리 세월이 지겨운지... 그래도 죽지 못하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하는데.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 보다 나가면 마음이 트여요. 나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참 잘해 줘요.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만 고착되었던 틀을 벗어나 이웃의 배려와 관심에 고마움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감정을 순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종교단체의 섬세한 배려는 고통스런 삶을 수용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참여자4 역시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족의 붕괴와 무기력함, 기성사회로부터 거부당한 분노로 굳어진 마음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극복하고 있다. 참여자는 진솔한 현실적 자아발견의 깊이를 통해 이상적 자아추구에 몰입함으로써 삶의 균형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돈은 주님이 가지고 놀라는 장난감인데, 장난감을 상실했을 때, 돈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보다 재질적으로 못한 애들이 다 한자리 하고 있으니.. 이제는 거짓자아를 버리려는 노력, 화두를 계속하고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진리를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참여자5는 노년기 이민생활에서 오는 이질적 문화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생활의 건조함과 피해의식을 주류사회의 모범적 측면과 실례를 통해 사고의 전환을 갖게 된다. 참여자는 긴 생의 여정을 통해 형성된 민족성과 자아정체성을 지키려는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 이민생활의 현실감을 체득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으며 생활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잘 살려고 왔는데... 서럽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인내를 가지고 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야지 해도 갈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말만 잘 한다면 그분들이 누구 흉을 보나요, 욕을 하나요, 참 좋은 분들이예요.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서럽지요.

유대인들 종교 그룹에 가 보면, 노인들이 젊은이들 앞에 두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경로잔치를 안 해요. 그게 경로잔치이지요. 우리 한국 노인

도 그런 분이 있다면 자존감 상실이나 그렇게 표류하지는 않을 것을...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죽고 싶은 생각으로 고착되었던 자아와 과거의 특정한 생활사건, 그리고 현재 삶이 교차되면서 참여자의 인식세계는 매일의 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적응과 자기투쟁의 현실적 문제로 구체화 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죽고 싶은 비참한 자아의 갇힌 틀을 깨고 상처 입은 자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3) 의식전환과 새로운 생활전략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의 현실 인식이 자아로부터 주변의 사람들과 생활현장으로 확대되면서 죽음보다는 삶으로 방향 지워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생의 실패자라는 과거의 부정적 자아이미지는 자살생각으로 정화되어 강한 자아로 변화된다.

자식으로부터 섭섭함과 배신감을 경험하고 상처받은 참여자1과 참여자2는 더 이상 혈연관계의 매듭에 연연해하지 않고 동년배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서 강인한 삶의 자세를 확립해 가고 있다. 이민초기에 자식에게 쏟은 열정은 자신을 위한 독립적 삶에 투신하고, 모국에 대한 그리움의 욕구는 절제와 마음 다스림으로 전환된다.

이제 자식들 안 기다려져요. 아파트에 노인들끼리 모여서 놀고, 지난 세월 이야기 하면 속이 후련하고,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요.

여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고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내 스스로 어차피 못 가는 것, 자꾸 그러면 뭐하노, 내 생활에 만족하려고 스스로 다스려요. 어떤 때 짜증나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마음을 돌리지요.

지금은 재미있어요. 1주일에 1번 성당 가는 것 기다려지고... 기운 차리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려울 때는 성경 읽고 계속 읽어요. 지금도 집에 있으면 신문 봐요. 깨우칠려고...

참여자3은 딸의 이혼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참여자의 희망은 딸이 건강을 되찾아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이다. 참여자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며 살아남기 위한 노력과 자신을 뛰어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는 원래는 아주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탄하면 병만 자꾸 생기고.. 내가 짜증내면 될 해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걸. 그래서 내가 바꾸었어요. 살기 위해서...

제 딸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한번 들어 봤으면... 그뿐이에요. 오늘도 저렇게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만 뿜어대니... 이런 꼴, 저런 꼴 안보고 얼른 가야지... 그래도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언제쯤이고 생이 끝날까요?

참여자4 역시 자신을 새롭게 변신하려는 힘겨운 노력을 보인다. 재산과 가족을 모두 상실하고 파산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에서의 극복 기제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자 한다. 이 참여자는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가고 있다. 지금껏 살아온 과거는 묻어버리고 죽음의 상징적 과정을 통해 마음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자기로 발전해 나가는 인생의 전환점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 그림일기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림일기에는 배경이 있고, 주제 설정이 있고, 형용사, 부사가 어울려 졌을 때 사람들이 감상합니다. 나는 또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거칠게 살아왔으니 더 강해질 뿐이고, 한국의 정서인 효를 믿고 살아 왔더니 아무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삶이 비교법이 되지만 미국은 개인주의가 팽배하니.. 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살면 되겠지요.

참여자5는 노년기 이민생활을 통해 느낀 소수민족으로서의 차별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애써 거주국민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면서 수용할 자세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습득한 고국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자존심도 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참아내는 건 생각이 문제에
요. 심심하면 버스 티켓 하나 끊어 가지고 다 돌아다
녀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차별 안하는데, 자기 자신이
날 푸대접하나 하고 생각하지요. 참 마음이 풍부해요.
핸디캡이 있다고 취급하고, 이들은 모른다고 하면 무
시하지 않고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 아량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서로 헐뜯지 말고 뭐든지 잘했
다고... 잘못된거 있어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믿어주
고 물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점이 있어도 이
해하고...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자살생각의 발상이 가족관계의 혼
돈과 불만족스러움, 보상욕구의 좌절, 참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사업의 실패와 인지적 긴장 등 부정적인 삶의
결과만이 아니라, 자살생각이라는 경험을 통해 삶의 의욕
을 재창조해 내는 계기로 자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가족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거부와 보상심리는 동년배 노인파
삶을 공유하며, 자아확대를 향한 독립적 삶에 투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환되고,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의 경험
은 삶과 죽음에 초연한 성숙의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
다. 한편 실패와 상실의 아픔만을 되씹으며 자살생각의 틀
안에 고착되었던 참여자는 원래의 자기 전공인 미술을 통
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가고 있다. 또한 정착되
지 못한 이민생활에서 느끼는 편견과 사회문화적 거리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긍정적 시각을 통해 행동적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2. 자살생각 극복에 대한 경험의 구조

참여자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은 과거의 자살생각 발상에
근거한 생활사건을 반추하면서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현실세계를 직시하며, 극복을 위해 부정
적인 이민생활사건에 대한 관점을 변경시켜 수용과 통합으
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미국 이민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에 대한 경험 구
조를 참여자의 생애 과정에서 시·공간을 통해 표출된 다
양한 경험과정을 나타내는 연결선을 의미하는 뜻으로 굵은
곡선으로 표현하였다(Figure 1).

참여자들은 자살생각을 하게 된 초기의 충격이 완화되면
서 현실세계를 직시하게 된다. 이때 참여자의 시선은 과거
한국에서의 생활과 현지상황을 비교하며 이민을 선택한 동
기를 반추한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현
재의 상황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며 고립적 이민생활에서 수
용적 사회문화 적응양상을 보인다. 특히 관계형성에서 과
거의 혈연적 종적 관계가 비 혈연적 횡적 관계로, 폐쇄적 자
아인식이 개방적 자아인식으로 변화하여 참여자의 일상적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 종교단체와 이웃사
람들로 확대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자살생각은 극
도의 절망감을 통해 변화된 강한 자아형성으로의 긍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으로 경직된 가족 중
심적 사고는 새로운 인위적 사회관계망의 형성으로 사고의
전환뿐 아니라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자기를 위한 독립적 삶
을 영위하고자 애써 노력하는 긍정적 반응을 발견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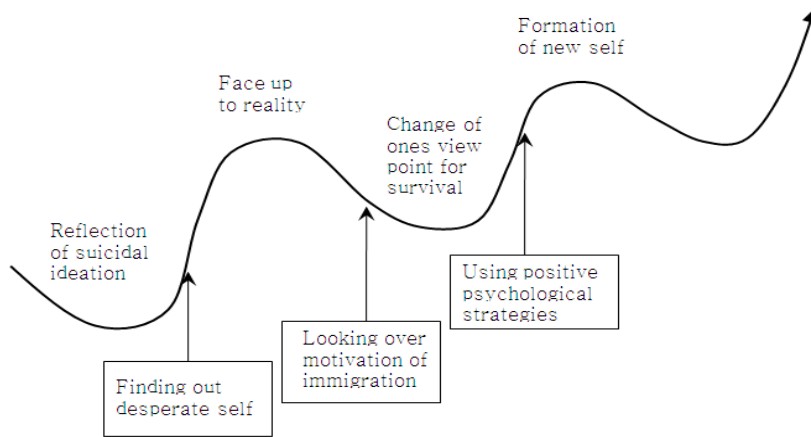


Figure 1. Structure of restoration experience toward suicidal ideation.

다. 한편 정신적 고통으로 희망을 상실한 참여자에게 수차례의 자살생각은 억압된 좌절감의 표출로 인해 삶과 죽음에 초연하며 도리어 삶이 더욱 구체적이며 현실적 투쟁으로 변화된다.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붕괴로 배신감과 철저한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 역시 자살시도의 실제적 사건을 통해 노년기에 절망한 자신을 직면하고, 긍정적 심리기제를 사용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가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이민으로 사회문화적 갈등과 정체감 혼돈을 경험하며 자살생각에 이른 참여자는 소수집단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거주국의 이질적 문화를 공감하며 대처와 긍정의 힘을 얻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살생각을 극복한 참여자들은 이민 초기의 폐쇄적, 고립적 상황에서 점차 거주국의 사회문화를 수용하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독특한 한국노인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사건은 노년기 마지막 발달과업의 부정적 결과인 절망을 뛰어 넘어 과거의 생활방식이나 사고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자아를 재구성하는 자리를 잡는다.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상이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모국을 떠나 살아온 경험에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측면과 함께 일반화 할 수 있는 공통적 측면이 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에는 3가지 핵심 구성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은 자살생각 발생 초기의 생에 대한 선택적인 회상을 통해서 이민자로서의 삶의 발자취와 위협적인 생애 사건을 검토한다.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생의 검토는 보편적 시간이 아니라 사건 시간(event time)이라고 볼 때(Greenhalph & Calmen, 2006), 이민노인에게 자살생각 극복 경험이라는 위기사건은 그와 같은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생각이나 행위의 의미와 관련된 생활 사건들에 맞추어져 있는 사건 시간이다. 이러한 결과가 간호 실무에 갖는 함의는 초기 자살생각 발생에서 이민 노인에게 위협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위기 사정과 생활사건의 의미를 전환하고 생애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자살생각 발생은 가족관계의 혼돈,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긴장, 자존감 상실과 정체감 상실 등 대부분 부정적인 생애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에 처한 참여자에게 자살생각은 참을 수 없

는 고통으로부터 개개인에게 해방을 가져오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미국 이민 한국노인의 경우 언어장애와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등 이민자 고유의 적응과제와 직면하여 이들의 우울 유병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Jeon, Kim, & Kim, 2005). 따라서 이민 노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과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간호학적 중재로 이민 노인 자살생각을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Bae (2004)는 우리나라 노인자살 요인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곤란, 가정불화, 기타 배신감 등 친지, 이웃과의 불화로 보았으며, Kong (2008)의 이민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 체험 연구에서는 건강과 자존감, 인간의 도리, 삶과 죽음의 수용이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1과 2, 그리고 참여자3은 임신, 출산, 양육, 가사일 등의 노동력 필요에 의해 딸의 초청으로 이민 온 여성노인이다. 자녀를 위한 참여자들의 희생적 봉사과 투신의 보상은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신체적 질병, 가정불화와 심리적 고통이었다. 참여자4는 사업의 실패로 인한 가정의 붕괴와 좌절을 경험하고, 참여자5는 노년기 이민으로 인한 정체감과 삶의 의미 상실이 자살생각의 주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주된 생활환경이 가족에 한정되어 왔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족 중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통적 견해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문화는 효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민노인들 역시 자식과 떨어지는 것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재미노인의 경우, 이민생활에서 오는 문화적 변동과 생활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결속도와 효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Jo & Doorenbos, 2009).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효 윤리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세대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민사회 문화에 적응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거부한 채 자녀에게 의존하며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보고(Shin, 2008)도 있다.

Park (2000)은 고립된 노인에 비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연계되어 있는 노인의 우울과 절망감 점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지적 했는데, 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비 혈연적 관계형성, 개방적 사고와 의식전환을 통해 자살생각을 극복한 본 연구참여자의 경험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년기 우울경향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족 간의 결속감이 우울정도를 낮추며, 기능적 결속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반면 애정적 결속은 우울을 감

소시킨다(Bae, 2004)는 결과를 볼 때 가정의 기능이 노인의 생존 의미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들의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노력이 요구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자살충동을 느끼는 노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Yoo (2003)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적 대책으로 사랑과 관심, 대화를 통한 가족기능의 정상화를 강조하였고, Jo와 Lee (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아직 동거부양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 자녀와의 결속도 아직은 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재미노인의 경우, 심각한 문화적 차이와 갈등은 우울을 가중시키고 정신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Jo & Doorenbos, 2009)이다. 노인들이 의사소통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질세계에서는 언어를 포함하여 문화적 위화감으로 의사소통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이민국의 노인들과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대 간 교류보다는 유사한 생활체험을 공유한 동시대인으로 같은 처지에 놓인 한민족과 동질성을 느끼며 상징적, 물적 교환을 통해 의사소통 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Kim (2000)은 이민노인들이 친밀한 인간적 유대와 포괄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로서 지역사회 한인센터나 종교기관의 활용이 끊어진 사회적, 정신적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5와 같이 노년기의 이민은 긴 세월 동안 학습된 기원사회의 가치관과 이민국의 정착사회 문화정체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고립감을 경험한다.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못하는 경우, 주변화로 전락할 수 있어 노년기의 통합성을 상실하고 삶을 더욱 위협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한편 발달이론에 의하면 노인이 될수록 외부적 사건이나 사회망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내면상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Mauk, 2006), 노년기 이민의 적응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변용 이외의 다른 측면을 포괄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노년기의 각종 질병이나 장애는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위험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내부요인이다. 노년기의 신체적 쇠퇴는 우울증을 증가시키며 정신적 안녕감을 위협하여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Jo & Lee, 2006; Jo & Kim, 2008). 본 연구에서도 절망과 고독감, 신체적, 정신적 고통,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자존감 저하가 기존 연구

(Kang, 2005; Kim, 2002; Kim, 2004)에서 드러난 노인의 고립감과 소외감, 삶의 무의미함과 절망감 등 생존에 대한 기대 가치가 죽음으로 얻게 되는 가치보다 적은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노인건강과 관련된 간호학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여자들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점진적인 현실세계로의 초점 전환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가족에 의해 소외당한 냉혹한 현실과 사회보장보조기금의 혜택, 그리고 도움을 베푸는 이웃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증대이다. Durkheim (1951)에 의하면 노인자살은 사회통합의 약화로 인한 자살과 사회규제력의 약화로 인한 자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언어나 기동력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연방정부의 주택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정부에 감사하며 매월 우송되는 노인보장기금을 “효자”에 비유하며 이민 온 현실에 안도한다. 또한 도움을 베푸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한인센터, 종교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자존감을 배양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와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의 체계가 노인자살 예방에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자들은 현실 직시와 의식의 확대로 신세한탄과 자기연민의 주관적 시선에서 돌봄을 베푸는 이민국과 이웃에게로 객관적 시야가 확장되며 점차 사회성을 키워간다.

참여자1과 참여자2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등 가족구성원과 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해 오면서 혈연관계가 아닌 보편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삶에 활력을 얻고 자신을 가족과의 밀착에서 분리시키는 객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반면 참여자3은 딸의 정신병과 이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비판적 자아에 고착되었던 틀을 벗어나 이웃과 종교단체의 섬세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수용적 삶을 계획하는 용기를 보여 주었다. 참여자4 역시 파산과 가족붕괴로 절망하며 기존사회로부터 거부당한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며 굳어진 자아가 마음수련을 통한 긍정적 대응으로 개방적 자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참여자5는 노년기 이민의 역동적 과제인 문화적 충격과 가치관의 대립,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지혜와 정신적용력을 발휘한 상황적 대응을 통해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민 온 동기과 선택의 여부, 한국노인과의 생활 비교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며 안도한다. Jo와 Doorenbos (2009)의 연구에서도 재미노인이 다문화 사회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참여자의 지각된 생활수준이나 노령수당 및 복지 프로그램 활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노인자살의 위험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교류의 감소(Oyama et al., 2005)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참여자들이 집안일과 손 자녀를 기르며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생활과 유사하다. 미국에서 성장한 자녀세대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가족주의 사고의 결핍으로 노인세대는 청·장년층 문화와의 급격한 차이로 인한 역할의 혼란(Kim, 2002)을 경험하며, 노년기에 맞게 되는 주요 상실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관계 형성(Park, 2005)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상황과 일치한다. Oyama 등(2005)은 노화과정에 대한 현실적 적응이 노년기의 성공적 삶과 의미 발견에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한 반면, 부정적 정서의 축적은 절망적인 태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노년기의 정서적 대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간호 실무에 주는 함의는 한국사회 문화와 대립되는 개인적이고 고립된 관계들을 개선하여 한인사회와 미국 문화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접촉의 기회를 증대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노인자살 예방대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민노인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의식전환과 새로운 생활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들은 이민국의 사회제도와 한인센터, 종교단체, 동년배와의 교류로 대처능력이 강화되어 개인적 책망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로 변화되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분노가 수용과 감사로 전환된다. 한편 남성노인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노인보장제도가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진술을 통해 이주자의 신분으로 거주국 사회에 편입되고 소수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존심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아극복의 아픔을 통해서 극복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긍정적 정서 반응은 자신과 노년기 생애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전통적 가족개념에서 독립적 생활에 대한 수용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고, 대신 동년배 한민족과의 연계망을 통해 남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외향적 성격으로의 전향과 같은 현실적, 구체적 목표설정으로 절망보다는 생활의 작은 것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부여한다. 이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노인들

은 자살생각과 관련한 정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자살예방을 위한 목표지향적인 중재가 요구된다(Kalichman, Heckman, Kochman, Sikkema, & Bergholte, 2000)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민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살예방중재 전략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참여자의 경우, 삶의 회고와 회상을 통해 과거 경험과 사건을 되돌아봄으로서 자존감과 정체감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지난 삶의 회고는 노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과거와 문화적 전통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들 소수민족 사회의 문화적 생존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중재를 통해 이민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문화적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가족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민 생활의 대안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조직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상호연대 할 수 있는 실천적 사회적 원조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Giorgi 현상학 방법을 통하여 미국이민 한국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미국 내 한국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간호 중재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의 핵심 구성요소를 '자살생각의 발상에 근거한 이민 생활사건의 반추', '이민을 선택한 동기에 초점을 둔 현실직시', '의식전환과 새로운 생활전략'으로 축약하였다. 이 핵심 구성요소는 자살생각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화 하였다.

본 연구가 간호연구와 실무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민 한국노인들의 자살생각 발상은 가족관계의 갈등과 붕괴, 자존감 상실, 정체성 혼란, 신체적 질병, 고립감과 함께 나타났다. 둘째, 미국 이민노인들의 자살생각 극복 경험은 이민 온 동기와 한국노인과의 생활 비교를 통한 현재 삶의 경제적 안전성을 통해 나타났다. 셋째, 미국이민 여성노인의 극복 전략은 노령수당 및 복지 프로그램 활용과 동시대 한민족과의 교류 및 종교생활을 통해 나타났다. 넷째, 미국이민 남성노인의 극복 전략은 사회보장보조기금

보다는 자존심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아인식의 아픔을 통해 나타났다. 다섯째, 한인센터나 종교단체와 같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의 활성화가 노인자살 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사회에서 한국노인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노인자살 문제의 이해 및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및 정책방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국인의 이주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은 급변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조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소수의 참여자로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참여자의 이민 온 시기와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극복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이민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극복경험에 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의 이중적 문화특성과 노인의 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문화기술적 연구접근방법으로 노인의 자살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향후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세분화 하여 이민 온 시기,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이민 한국 노인의 이민동기에서부터 이민생활과 노년기 삶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측면에서의 삶의 회고를 통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진다면 이민자로서의 삶에 관해 보다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ae, J. Y. (2004). Case study about elderly suicid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23, 65-82.
- Bennett, A. T., & Collins, K. A. (2001). Elderly suicide: A 10-year retrospective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orensic Medicine and Pathology*, 22(2), 169-172.
- Carter-Pokras, O., & Woo, V. (1999). Health profile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Ethnicity & Health*, 4(3), 117-120.
- Chee, Y. K. (2004). *Mental health, aging, and the aged in Korean culture*. Available at: <http://www.mhaging.org/info/10-4-chee.html>
- Durkheim,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Greenhalph, T., & Calmen, K. (2006).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Stories in illness and healthcare*. Oxford: Radcliffe Publishing.
- Hovey, J. D. (2001).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 Jeon, E. Y., Kim, S. Y., & Kim, K. B. (2005). Analysis of depression and health status in Korean-America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7(2), 157-165.
- Jo, K. H., & Doorenbos, A. Z. (2009). Types of survival attitudes among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6), 603-616.
- Jo, K. H., & Kim, Y. K. (2008).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storation experience for suicide ideation of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2), 258-269.
- Jo, K. H., & Lee, H. J. (2006). Attitudes of elderly Koreans toward suicid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05-916.
- Kalichman, S. C., Heckman, T., Kochman, A., Sikkema, K., & Bergholte, J. (2000). Depression and thoughts of suicide among middle-aged older persons living with HIV-AIDS. *Psychiatric Services*, 51(7), 903-907.
- Kang, D. G. (200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ru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Kim, E. R. (2000). Communication network of the aging Koreans in America. *Journal of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Korea University*, 12, 23-33
- Kim, H. S.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 Kim, S. Y. (2004).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facto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19, 181-205.
- Kong, E. S. (2008). A study of daily living experiences among the Korean female single elderly peopl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7, 27-48.
- Lee, Y. M. (2007). The immigration experience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403-410.
- Mauk, K. L. (2006). *Gerontological nursing competencies for care*. Boston: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Chapman & Hall.

- Mui, A. C. (2001).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3/4), 281-299.
- Oyama, H., Watanabe, N., Ono, Y., Sakashita, T., Takenoshita, Y., Taguchi, M., et al. (2005). Community-based suicide prevention through group activity for th elderly successfully reduced the high suicide rate for femal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9(3), 337-344.
- Park, K. S. (2000). Informal social 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Sociology*, 34(4), 621-647.
- Park, S. C. (2005). *A study about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to the el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D. S. (2008). Residential and caregiver preferences of older Kore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4(6), 48-54.
- The Bureau of Statistics (2009). *Statistical data about causes of death in Korea*. From <http://www.nso.go.kr>
- Yoo, S. H. (2003). Family plan about suicide. *Soongsil University Social Science Study*, 6, 69-80.